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권수영 • 3M 화성공장 보건관리자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3M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3M은 광학필름, 의료, 안전, 전자, 전기, 자동차제조, 건설, 전력 및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소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혁신기업입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리너 제품 및 사무, 오피스용품 등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3M은 포스트잇, 스키타치테이프 등의 문구와 생활용품 등 B2C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산업용 소재와 부품에서의 비즈니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1만 7,000여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과 전자용 소재, 부품, 자동차용 부품, 제조, 산업용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으며, 경기도 동탄 기술연구소는 세계 7대 핵심 R&D 센터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어요.

산업간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대학교 시절 산업체로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을 약 2주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의 실습과 달리, 간호사가 주도하여 일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사업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어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지만 그 뒤 우연한 기회에 산업간호협회 공고를 보고 산업체에 지원을 하여 현재까지 산업간호사로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 실습 간 당시 산업간호사 선생님 이 현재는 같은 대학원 동문이자 멘토로 인연이 이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간호사로 일하시며 어려운 점은?

처음 산업간호사로 일할 때에는 대학교 때 관련된 배운내용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간호사는 오직 나 혼자였기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는 산업간호협회 교육이나 인터넷 카페, 대학원 등을 통해서 많은 산업간호사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지금은 보건관리자로서 건강증진 또는 새로운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사업주에게 제안할 때 사업주 및 직원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M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므로 한국에 없는 미국의 선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때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예로 병가 후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복귀 시 업무를 일시적/영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복귀 프로그램이나 방진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호흡보호구 의학적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의사가 알아서 구체적인 의견을 주지만 국내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간호사가 문헌이나 주변의 의견을 구하여 의사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일을 하시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어느 보건관리자라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직원들의 생각이나 습관들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부터 저 나트륨식사 프로그램인 '뚝어 뺑'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나이가 30대 초반으로 건강보다는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시기이다 보니 처음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약 6개월간의 홍보 및 교육, 점차적인 나트륨 감소를 하다 보니 그 때부터는 좋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외식은 짜서 못하겠다고 한다든가 오히려 회사 식당의 음식이 조금이라도 짜거나 하면 바로 저한테 알려줘서 싱겁게 해달라고 할 때면 '저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맞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직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때에 매우 뿌듯합니다.

좌우명이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보건관리자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배움이 정체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에 항상 찾아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증인 COHN-S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격증이다 보니 미국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영어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부담감

도 있지만, 미국 쪽의 산업간호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나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라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혼자서 여행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2009년에 많은 업무로 지쳐 있던 때라 여행을 가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행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같이 여행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더군요. 하지만 한 번 혼자서 여행을 가보자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진을 찍어 줄 사람이 없고 같이 밥 먹여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나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고 또한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하며 더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당시 소심하기만 했던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말도 걸어보고, 도움도 요청하고 또 나도 쉽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정을 쌓았던 것이 아직까지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산업간호사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매우 존경스럽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업간호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으며, 법개정이나 새로운 건강문제들로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자극받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산업간호사분들이 그렇듯이 회사에서 혼자 또는 소수로 있다 보니 외로운 혼자만의 투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회나 협회의 교육이나 기타 여러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같이 서로 지지하고 북돋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